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바룩서 5, 1-9    제2독서    필리피서 1:4-6, 8-11    복음    루카 3:1-6

**말씀 < 마음의 온도, 지구의 온도 >**

예수님 오시는 길,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 대림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깨어 기다리는 시기이다, 오늘 루카 복음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들려준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리라.” (루카 3:4,6) 주님 오시는 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하나는 ‘우리 마음’ 에 오심이다. 지난주 ‘내 마음의 구유’ 에서 깨끗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마음의 온도 36.5도’ 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36.5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온도로써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 온도이다. 이를 상징적 의미로 마음 온도로 표현해 본 것이다. 36.5도 마음의 온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든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하여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 보자.

다른 하나는 ‘우리 공동의 집’ 에 오심이다. 누군가를 맞이할 때 우리는 집안을 깨끗이 한다. 오시는 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환대의 마음에 머무는 동안 편안함을 느끼게 해 준다. “많은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 1.9)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 우리 ‘공동의 집’ 인 지구에 오신다. 이는 주님을 맞이하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게 한다, 지금 세상은 ‘지구 온도 1.5도 상승’ 이라는 이 수치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면 지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탄력성을 상실한 채 지구 생태계는 파멸로 가고 맙니다.” 라고 한다.

독일 베를린 기후 연구소가 운영하는 기후 시계인 ‘탄소 시계’ 가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7년 몇 개월’ 로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상승은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의 감소, 해수면 상승, 물 공급과 식량 생산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가 파생적으로 일어나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편교회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7년은 성경의 안식년을 맞이하는 의미)을 시작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구환경과 관련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위협을 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구하자는 의미이다. 한국교회도 이에 맞추어 주교단의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하고 지난 5월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였고, 우리 주교님께서도 대림 첫 주일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7년 여정의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셨다. 주교님께서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 하지만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그리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 어머니인 지구’ <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를 지키기 위한 7년 여정에 기도와 실천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주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 곧게 내어라.’ 이 번 대림시기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지구 환경을 두고 묵상하고, ‘절약’ 으로부터 시작해서 응답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07일(화)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1,153.00
			교 무 금	\$ 2,670.00
12월08일(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오전7시30분	성 물 방	\$ 162.00
			자 선 비	\$ 205.00
12월09일(목)	대림 제2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소후원	\$ 215.00
			도네이션	\$ 500.00
12월10일(금)	대림 제2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12월11일(토)	대림 제2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4,905.00
12월12일(일)	대림 제3주일	오전9시(학생) 오전11시(교중)	미사참례자	학생/아동:11명 성인:204명
교무금 봉헌자	김응환. 박병수 (11-12월) 임채봉. 김기상 (10-12월) 이경희 (7-12월) 안선미 (10-11월) 김주동 (11월) 윤영자. 김병길. 조영숙 (12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욥시21:5)

구유 안에 소와 나귀는 왜 있는걸까요?

“2000년 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셧습니다. 교회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큰 기쁨을 성탄 시기를 통해 기념합니다.” 이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 에게 여러 다양한 풍습과 전통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유’ 겠지요.

이 구유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과 성 요셉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카 복음에 따르면 구세주의 탄생을 목동들 에게 알리며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 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 14)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천사 들, 목동과 양들이 구유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 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임금으로 드러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 에 우리는 마태오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등장 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의 세 박사를 구유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따라 구유를 꾸미는 등장인물들은 참 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유를 유심히 살펴 보면 소와 나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유에 ‘소’ 와 ‘나귀’ 가 있는 걸까요? 이는 초세 기 교부들의 성경 해석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오리게 네스 교부는 루카 복음 강해에서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사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주님의 구유를 알지 못했지만, 부정 한 이방인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당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 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며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 셧을까요? 지금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 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정말 큰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께 달려가 경배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형제 자매들인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내어주기를 바라십니다. ...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돌볼 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를 드립시다.”  
- 교황 프란치스코, 2018.1.6. 강론 -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옥 .안나/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기은희 .마리아/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김초지 .마리아/이규청 .제노비아 엄 모 니 카 / 배 미 성 . 오 톨 리 아 / 박 모 란 . 글 라 라 고 공 자 . 벨 라 뎃 다 / 신용 경 . 그 레 고 리 오 / 이상 일 . 마 리 아 남 필 레 . 마 리 아 / 김 화 진 . 요 안 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조유희밀지다
연	전기레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이선자안나
연	이돈수알폰소 영혼	이주엽발렌티노	생	김정필라파엘 빠른 회복	김순화벨리나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감사미사	김수산나
연	오영애.바울라, 전기레.베레나 영혼	윤재경알베르도	생	이수동베드로, 벨라뎃다 영육건강	구비아
연	최철호 영혼	최정신데레사	생	박용호요셉 영육건강	박율리아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1인 1신심단체, + 1봉사단체 가입하기>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깨어준비하는 은혜로운 대림절 되세요

1. 성탄판공성사 (성사표:게시판앞 비치)

대림시기동안 미사 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들과 함께 성사보시기 바랍니다.

2. 대림 전례교육 (전신사)

대림기간 동안 미사 때 간략한 전례교리를 시작합니다.

3. 사목회 임시총회

일 시:12월5일(일) 교중미사직후. 엘리사벳방  
안 건:사목회 회칙개정 인준 및 새 회칙에 따른  
2022년도 사목회장 추천

참 석:사목임원,구역장,제단체장

참석자들께서는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참석바랍니다.

4. 성탄트리 및 구유장식 (12월5일 까지)

전례부 등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5. 리노공소 미사안내 (참여단체:사목회장단)

일시:19일(일)성당에서 오후1시20분 출발

6. 레지오 년차 총친목회

일시:12일(일)교중미사후 친교실

모든 레지오 정단원 및 협조단원

7. 교무금 봉헌 (2021년)

교무금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의무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금년도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성탄맞이 본당 대청소 (게시판 참조)

9. 현관 입구 바닥 타일 공사

일 시:12일(일).교중미사후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게서는 모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 매일미사 연간구독 신청 (2022년)

대(1년 \$120), 소(1년 \$70) 신청:사무실

11. 주보광고 신청 (2022년)

금액:\$150/1년(외부인:\$200/1년) 신청:사무실

12.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신부님(\$1,830), 사무라이(\$500),

13. 감사합니다

성당내부 카펫교체작업에 동참해주신 신부님.  
부제님.사목위원,청년회 등 자발적인 봉사자들과  
음식을 제공해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4. 된장.고추장 판매합니다 (여성부)

큰 병:된장 \$25, 고추장 \$30 (각각 1 Gallon)

작은병:된장 \$13, 고추장 \$15

<< 주일학교 소식 >>

학부모 회의

일시:5일(일) 9시미사후 엘리사벳방

◎ 병자성사 및 봉성체 (신부님께 개별 신청)

◎ 본당에서 발행한 Check는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에서의 소규모 단체모임 허용

본당 신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비드19 관련, 본당 방역 지침 (요약)

- ①성가책과 기도책은 모두 개인이 지참.사용  
하시기 바라며, 미사후에는 개인소지품은  
백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②약수/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은 삼가하시고,  
코비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③미사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의 성가제창 및  
기도문 봉독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합니다
- ④그 외 사항은 교구지침을 따릅니다.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셨네.

전례봉사

대림 제2주일(12월5일)

대림 제3주일(12월12일)

대림 제4주일(12월19일)

성가정축일(12월26일)

미사해설

김은영.폴리나

정미정.루시아

이순자.요안나

최금주.요안나

복 사

최준우.루까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장현철.엘리야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 bongjun5322@gmail.com

###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

###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

###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

###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

###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mailto: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mailto: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http://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mailto:aeyon7511@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